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는 없다



최 성 갑
(도원농장 대표)

최근 고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양계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양계산업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계를 하는 입장에서 답답하고, 한심한 생각만 들뿐이다

어찌하였든 이미 벌어진 일을 우리는 수습하여 다시 일어서야만 하지 않을까?

1)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의 발생은 인재다.

감히 이것을 인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저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는 1996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발생되어 왔다.

따라서 협회는 물론 관련인들은 외국의 예로 보아 저병원성이 발생한 국가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가 흔하다는 예를 들어 정부에 저병원성이라도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 고병원성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고 수차 지적한 바 있다. 단지 농림부는 저병원성은 문제가 없다고 하여, 덮어 두었지 않은가?

지금에 발생한 고병원성의 발생원인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또한 오리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은 전무함으로 인하여, 오리사육농가의 방역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하여, 작금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러한 이유로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방역대책이 너무 미흡하다.

외국의 경우를 보아도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을시에 많은 닭을 살처분하였다. 이는 이 질병의 무서움을 말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독일의 경우 반경 10km이내의 닭을 다 도축

한 바 있으며, 일본이 발생하자마자 반경 30km이내의 닭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3km이내의 닭과 오리를 도축하고, 10km이내의 오리만 도축하였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본다.

10km이내의 닭은 감염되어도 괜찮은 건지 알 수가 없다. 그 결과는 다시 발생하는 사태로 최악의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라고 의심 할 수밖에 없다.

3) 현 상황에서 종계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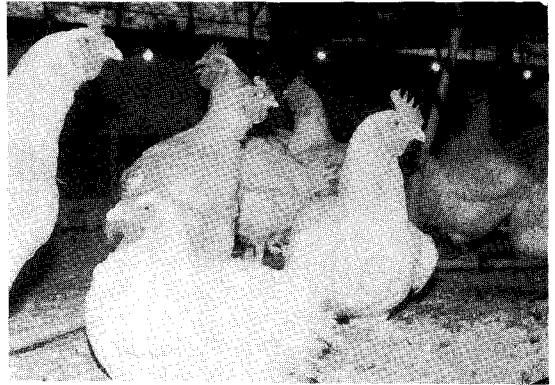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길은 우리 모두 협력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소비는 50%이상 감소가 되었으며, 앞으로 계속 발생시 소비가 어디까지 급락 할 것 인지는 누구도 예측 할 수 없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가격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국의 예로 보아도 고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의 종료는 발생후 6개월 이상이 걸려서 종료되었음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무려 1년 8개월의 불황을 겪어 정말로 아사(餓死) 직전에 있는 육계 산업은 이제 6개월을 더 버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모두 손을 놓고 이 업을 접어야 하는 기로에서 있음을 누구나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계업계, 계열업체, 정부 그리고 양계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대책으로는 우선 막대한 양의 종계를 감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나마 줄어든 소비를 감당하는 길이 생길 것이다.

종계의 도태 없이는 계속 병아리를 생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 대책 없이 생산을 안 하게 되면,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농가가 부지기수일 것이다. 계속 병아리를 생산한다면 결과는 전 업계가 가격의 하락으로 접어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농림부에서 전국의 종계를 10% 강제 도태하기로 정한 바 있으나, 이는 각 농장별로, 계군마다 1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었다.

발상 자체는 좋으나 그 실현성은 비효율적이라 생각되어진다.

왜냐하면 지금 AI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닭의 일부만을 도태한다는 것은 방역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지며, 시간 또한 엄청나게 걸릴 것이다.

이에 농장을 비우는 방법으로 종계를 도태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즉 계군을 한꺼번에 없애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종계를 도태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만 한다.

즉 종계를 도태시키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앞으로의 생계대책이 주어져야만 그들이 종계를 도태시키는 희생을 하게 될 것으로 보며, 그럼으로써 남은 사람들이 또한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살길이 열릴 수 있으며, 서로 win win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정부에서 도태시키는 사람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만 될 것이다.

4)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말자.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가장 효율적으로 종식하고 모두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종계업계와 계열업체는 종계를 도태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많은 수의 병아리 생산으로 늘어난 육계시장을 정부는 수매라는 명목으로 계속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많은 양의 종계 도태만이 전 육계업계가 살길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계열업체는 자기들의 영업을 위하여 막대한 종계를 자체적으로 가져가는 일은 이제는 종식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Win Win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은 남이 죽어야 내가 사는 세상은 이미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진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호미로 모든 상황을 종료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양계

※이 의견은 본회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석회 ♠ 소석회

- ♣ 산성폐수 및 오수정화
- ♣ 축사소독 및 악취제거
- ♣ 총란 및 병원균 살균
- ♣ 유기질 분해촉진
- ♣ 산성 토양 개량(pH안정)

영월석회공업사

사무실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250번지
 전 화 : (033)372-5837, 5618, 팩스 : (033)372-5889
 전 화 : (033)372-5296, 6878, 야간 : (033)372-5293